



KIA 타이거즈의 캠프가 마련된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 V11을 향한 '호랑이 군단'의 움직임이 뜨겁다.

필승 채비 끝났다... 호랑이 바람 기대하라

오키나와가 야구 열기로 뜨겁다. 미국 애리조나에서의 담금질을 끝낸 KIA 타이거즈는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에 캠프를 꾸리고 2013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V11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KIA의 캠프는 오는 3월6일까지 계속된다.

코치진-선수들 소통의 야구
타이거즈맨 변신 김주찬 적응 끝
이범호·최희섭·김상현 부활포 기대

는 오키나와 캠프의 화젯거리였다. 스승과의 대결 전적은 1승2패, 라쿠텐과는 1승1패, 한화에도 1패를 기록했다. 선 감독은 3월1일 다시 스승 김 감독을 만나 대결을 벌인다.

특급 코치진들의 만남도 화제였다. 특히 한화와의 대결에서는 레전드급 코치들이 대거 자리를 하면서 그라운드보다 덕아웃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레전드 감독 김응용, 프로야구 마운드를 주름잡았던 선동열과 송진우 그리고 '에이스 오브 에이스' 이대진. 전설의 한방 김성환, 교타자의 지존 김종모, 그라운드를 휩쓸던 대도 이순철과 이종범, 프로야구 첫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 오대석.

◇KIA 덕아웃의 봄
4차례의 연습경기를 남겨둔 KIA의 전적은 2승7패. 승보다 패가 많지만 KIA 덕아웃 분위기는 밝다.

지난해 지취를 감행한 이범호·최희섭·김상현 'LCK'포를 중심으로 큰 부상선수 없이 수월하게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 신예 선수들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보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거즈맨으로 변신한 김주찬도 스투업없는 선수들 사이에 녹아들면서 원래 있던 선수처럼 자연스럽다. 훈련 뒤 갖는 휴식시간은 꿀맛. 이른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비좁은 라커룸에 앉아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시끌벅적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우승’에 대한 자신감도 넘친다. KIA를 괴롭혔던 부상이 잠잠한데다 FA(자유계약) 효과가 더해졌다. FA로 김주찬을 영입해 기동력과 타력을 업그레이드 했고, 투타의 핵심 윤석민·이용규가 FA를 앞두고 있는 만큼 KIA 선수단은 2013시즌을 우승 저기로 끌고 있다. 야구 천국 오키나와에서 불고 있는 KIA의 봄 바람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 풍성한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wool@kwangju.co.kr

오키나와=글·사진 김여울기자

◇야구천국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2월은 여름처럼 뜨거웠다. 일본 최고의 인기 명문 구단 요미우리 필두로 니혼햄, 주니치, 라쿠텐, 야쿠르트, 한신, 오릭스, 요코하마, 지바 롯데가 오키나와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또 KIA, SK, 넥센, LG, 한화가 '약속의 땅'으로 선택하면서 관광 도시 오키나와는 야구거점 도시로 변신했다.

20도를 넘나드는 따뜻한 기온과 많은 구단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야구 인프라, 연습상대가 많다는 장점에 오키나와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선동열 감독의 영향력은 오키나와 리그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SUN 파워가 발휘되면서 KIA와 만난 일본팀들은 연습경기에 주축 선수들을 대거 내보내면서 시즌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야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일본, 야구 스타들을 만나기 위해 본토에서 건너온 일본 야구팬들과 한국에서 날아온 열혈팬들로 숙소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KIA 선수들에게도 스타 선수들을 만나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특히 일본 최고령 투수인 주니치의 야마모토 마사(48)는 선수들에게도 인기 스타였다.

◇SUN의 햇볕정책

KIA 선동열 감독은 2013시즌 첫 훈련에서 '우승'을 언급했다. 친정팀 복귀 첫째 4강 탈락의 쓴 잔을 마셨지만 올 시즌에는 더 탄탄해진 전력 과 전술로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우승 시나리오에는 SUN의 '햇볕정책'이 있다. 수석코치를 거쳐 감독으로 승격했던 삼성 시절과 달리 KIA에서는 선수단 파악과 소통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전력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사우나가 선 감독이 선택한 소통의 중심지다. 사우나에서 선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경기장 밖 외교를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투수들을 대상으로 감사로 변신,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KIA 선수들을 춤추게 하는 '칭찬 효과'도 있다. 지난 21일 몸을 사리지 않은 호수비로 라쿠텐과의 경기에서 수훈선수로 상금을 받았던 김선민은 선 감독의 칭찬과 함께 방망이 선물까지 챙기기도 했다.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한 '칭찬 전략'이 덕아웃 분위기를 녹이고 있다.

◇거물들의 만남

거물들의 만남이 연달아 성사되면서 KIA 캠프는 오키나와 리그에서 가장 취재진의 주목을 받은 곳이었다. 사제간의 만남도 남달랐다. 선 감독의 한국 스승 김응용 한화 감독, 일본 스승 호시노 라쿠텐 감독의 재회



덕아웃에 앉아 상대팀 전력을 분석하고 있는 선수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